

# 外貌變因이 知的 印象形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구전문대 가정과  
연구자 문 영 보  
건국대학교 의상학과  
연구자 이 인 자

目 次	
I. 序 論	3. 본 실험
II. 이론적 배경	4. 자료분석
1. 인상형성 이론	IV. 결과 및 논의
2. 인상형성 차원	1. 지적 인상척도의 신뢰도
3. 외모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2. 외모 및 자극물 제시수준이 지적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III. 연구방법 및 절차	V. 結 論
1. 실험설계 및 용어정의	참고문헌
2. 자극물 선정에 위한 예비연구	

## I. 序 論

낯선 사람과의 초기 접촉시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상대방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주어진 정보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형, 피부색, 체격, 의복스타일 같은 可視的 대상에 대한 인상 뿐만 아니라 정서나 성격특성, 태도 등과 같은 내부상태까지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타인에 대한 첫 인상은 그 사람의 외모, 행동, 상황 또는 사건의 맥락을 통하여 형성된다고 볼 때 외모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격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이다.

지금까지 외모변인 중 특히 의복이 성격적 특성을 나타내는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sup>1,2,3)</sup> 의복 이외의 변인인 얼굴 인상과 관련지어 다룬 연구는 약간 있을 뿐이다.<sup>4,5)</sup> 그런데 타인에 대한 인상은 의복이 단독으

로 인상을 결정하기보다는 얼굴 및 헤어스타일 등의 외모와 결합된 상태에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각자가 느끼는 인상이 어떤 외모변인에 의해 더 크게 영향 받는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성격인상 중 지적 인상을 중심으로 이러한 인상형성에 미치는 외모단서들의 영향과 외모가 부분적으로 제시되었을 때와 전체적으로 제시되었을 때 미치는 인상형성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인상형성 이론

#### 1) 인지적 접근(Cognitive approach)

인상형성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실험 연구를 한 Asch<sup>6)</sup>에 의하면, 인상은 타인에 대한 전체적 형태 안에 有意味한 형태로 통합하게 된다고 하였

다. 그 정보의 단편들 간에 있는 상호작용은 전반적인 인상에 기여하기 때문에 주어진 단편적 정보의 의미는 그 사람에 관한 다른 정보의 맥락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래서 같은 성격 특성이라도 지각 대상자가 가진 다른 특성에 따라서 다른 의미의 해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어떤 정보의 특성들은 다른 특성들보다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실험한 결과 전체적인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것을 중심특질(central traits)이라고 하였는데 예컨대 “따뜻하다(warm)-차다(cold)” 같은 중심특질에 따라 주변특질의 의미가 결정되어 전체적인 인상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Rosenberg, Nelson 및 Vivekananthan<sup>7)</sup>의 연구에 의하면 “따뜻하다-차다” 변인은 사회적 평가시에는 중심특질이지만 다른 맥락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러한 것을 통해 볼 때 중심특질도 맥락에 의해 인상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학습적 접근(Learning theory approach)

학습적 접근에서는 사람들은 주어진 정보에 대해 기계적이며 단순한 방식으로 그 정보들을 통합해 인상을 형성한다고 한다. 여기서 累加模型은 각 정보의 尺度價들을 단순히 합산함으로써, 平均模型은 각 정보의 척도가들을 평균함으로써 인상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모형이 극단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나 새로 주어진 정보의 척도가에 따라서 결과가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Anderson<sup>8)</sup>에 의하면 사람들은 모든 정보의 단편들을 평균함으로써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하지만 크게 正的이거나 크게 負的인 특성들에 대해 더 큰 중요성을 둔다고 설명하여 加重平均模型을 제시하였다. 학습적 접근은 인상형성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 시키고 있으나 가중평균모형은 Asch의 중심특질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인상형성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 2. 인상형성 차원

인상형성 차원에 대한 연구는 意味微分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의미미분법은 Osgood, Suci 및 Tannenbaum이 어떤 지각 대상이나 개념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인데, 그들은 양

극형용사척도를 사용하여 의미공간을 측정한 결과 3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즉, 평가차원, 역능차원, 활동차원인데 이 세 차원중에서도 평가차원이 전체 변량 중 가장 설명력이 높아서 가장 중요한 차원이라고 했다.<sup>9)</sup> 이러한 현상은 대인지각에서도 나타나서 평가차원은 대인지각시 가장 중요한 차원이 되고 있으며 의복을 자극물로 사용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sup>10-16)</sup>

그러나 Rosenberg 등도 인상형성에 있어서 평가차원이 중심적이라고 보았으나 多次元 分析方法을 통해 평가차원은 사회적(social) 평가차원과 지적(intellectual) 평가차원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sup>7)</sup> 이때 사회적 평가차원에 속하는 성격특성들은 대인관계적 특성을, 지적 평가차원에 속하는 성격특성들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특성들을 의미했다.

김성희<sup>17)</sup>도 한국어 성격특성 형용사들의 인상형성 차원을 요인분석한 결과 일반적 평가차원, 능력차원, 친호차원을 추출하여 Rosenberg 등의 이론을 지지했다. 일반적 평가차원은 주로 好惡도가 낮은 형용사들로 구성되었으며 호오도가 낮을수록 평가적 속성이 강했다. 능력차원은 과제수행이나 지적활동에 관여되는 성격특성 형용사척도들도 구성되어 Rosenberg 등의 연구결과 중 지적 차원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친호차원은 대인관계적 특성과 관련된 성격특성 형용사 척도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적 평가차원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한편, 대부분 인상형성 연구에서 사용된 양극형용사척도는 차원의 양극성을 가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채 사용되어 왔다. 김<sup>17)</sup>은 인상형성 차원을 단일형용사 척도를 사용하여 요인 분석하였는데 어휘적 반대어 간의 양극성을 지지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양극형용사 척도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단일형용사 척도를 사용하였다.

## 3. 외모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Kaiser<sup>18)</sup>에 의하면 사람들은 첫 인상을 발전시킬 때 대개 내현성격이론에 의존하고자 하며 의존할 만한 다른 단서가 없을 때 외복과 신체적 외모

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모 중에서도 의복, 얼굴, 헤어스타일 등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로 고찰하였다.

의복 : Sweat와 Zentner<sup>31)</sup>는 외모의 스타일(헤어스타일 포함)이 개인에 대한 특성지각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Paek<sup>19)</sup>은 여성복을, Bell<sup>20)</sup>은 남성복을 자극물로 하여 의복스타일에 따라 개인적 특성이 어떻게 지각되는가를 연구한 결과 개인의 특성은 의복스타일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있게 지각되었으며 지적인 특성은 보수적 스타일 착용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Lennon과 Miller<sup>21)</sup>는 외모의 특징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는데 블레이저 재킷, 안경은 명백한 지적 단서로써 존경성은 증가시켰으나 친호성은 감소시켰다고 하였다. 그리고 神山進·牛田聰子 및 栢田庸<sup>22)</sup>도 어떤 의복의 특징과 특정한 성격특성 지각간의 현저한 관련성을 발견하였다. 의복특징의 기발함을 통하여 성격특성의 적극성, 사려성결여, 비사교성이 지각되었으며 유행감각과 색채기호는 적극성과 관련되어 지각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의복이 개인의 특성 중 과업수행 능력평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Lapitsky와 Smith<sup>23)</sup>는 의복이 개인의 특성과 수필 능력에 대한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Behling와 Williams<sup>24)</sup>에 의하면 교사와 학생은 모델 학생이 착용한 의복에 의해 지능과 학업 성취도 인지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의복에서 陽性이 나타날수록 관리직에서 요구되는 개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으며 호의적인 고용추진을 받았다고 하였고<sup>25)</sup>, 의복에서 男向性이 더 많이 나타날수록 남성적 관리특질을 더 많이 전달한다<sup>26)</sup>는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의복이 지적, 관리적 능력 등 개인의 능력에 대한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Cash<sup>27)</sup>는 비관리적 여성의 외모 단서는 부드럽고 꼭끼는 스웨터, 낮은 목둘레선, 반투명 블라우스, 러플있는 블라우스으로써 여성적인 성 유형을 반영한다고 하였으며, 그것에 비해 관리적 여성의 외모단서는 단순하거나 타이칼라로 된 블라우스, 테일러드 자켓 등으로 비관리적 여성의 외모 때보다 지적인 속성의 점수가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얼굴 : Conner, Peters 및 Nagasawa<sup>4)</sup>는 첫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의복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3가지 인상(활동적 인상, 사회적 인상, 지적 인상)의 사람에게 3가지 인상의 의복을 서로 바꾸어가며 착용시켜 인상을 측정된 결과 지적인 첫인상 지각에 인물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인자 등<sup>5)</sup>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지적 인상형성에 의복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Conner등<sup>4)</sup>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루어진 인상형성 연구이다.

헤어스타일 : Cash<sup>27)</sup>는 의복, 헤어스타일, 화장을 중심으로 몸단장 스타일이 관리직여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비관리적 외모단서는 쉼이 많은 긴 머리로써 엄격하고 얼굴을 가리고 리본이나 머리핀으로 장식한 형태며 관리적 외모단서는 짧고 단순한 헤어스타일로 장식이 없고 얼굴을 가리지 않는 형태라고 하였다. 그리고 Pancer와 Meindl<sup>28)</sup>에 의하면 머리카락 길이가 성격적 인상형성에 주목할만한 효과를 가져서 긴 머리의 남자는 짧은 머리의 남자에 비해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였다고 함으로써 헤어스타일도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시사하였다.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실험적 방법으로 접근하였으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 1. 실험설계 및 용어정의

##### 1) 실험설계

본 연구를 위한 실험은 5가지 독립변인이 조합된(2명의 모델×2가지 헤어스타일×2가지 의복스타일×3가지 의복부너×2가지 제시수준) 5원 요인 설계로 이루어졌다.

##### 2) 용어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그 의미를 제한한다.

- (1) 외모 : 모델의 얼굴, 헤어스타일, 착용한 의복.

(2) 지적 인상 : 知力을 필요로 하는 일에 능력 있어 보이는 것으로 강인하고 빈틈없으며 냉철하게 보이는 인상.

(3) 사회적 인상 : 대인적 특성으로서 상냥하고 다정하며 온순하고 원만하게 보이는 인상.

(4) 자극물 : 실험에 사용된 그림이나 사진 또는 슬라이드.

(5) 제시수준 : 자극물인 슬라이드가 상반신 또는 전신으로 제시된 상태.

## 2. 자극물 선정을 위한 예비연구

얼굴, 헤어스타일, 의복스타일 등 독립변인에 대한 지적, 사회적 인상단서를 추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 1) 1차 자극물 선정

**얼굴 :** 연구에 적합한 인상을 가진 얼굴의 모델은 신구전문대학의 여학생 600명 중에서 선정하였다. 학생들에게 얼굴을 통해 지적 인상과 사회적 인상을 느끼게 하는 다른 학생을 용지에 적어내도록 하여 추천된 8명의 학생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때 얼굴을 부각시키고 얼굴 이외의 변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검정색 티셔츠를 착용시켰다. 헤어스타일은 뒤로 묶은 형태를 하였으며 헤어스타일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검정색 배경을 하였다.

**헤어스타일 :** 웨이브 有無에 따라 스트레이트형과 웨이브형으로 나누고 길이별로 쇼트, 세미 롱, 롱으로 나누어 구성된 6가지 스타일을 제시하였다. 이 헤어스타일은 유행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형태였고 6가지 스타일의 가발을 동일 마네킹에 착용시킨 후 헤어스타일을 부각시키기 위해 흰색 배경으로 흑백사진을 활용하였다.

한편, 의복은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착용하는 블라우스와 스커트로 한정하였다.

**블라우스 :** 블라우스는 네크라인 형태 2가지(둥근형, 브이형)와 목과임 형태 2가지(목둘레형, 깊게 파인형), 칼라 외곽선 형태 2가지(직선형, 드레이퍼리형)로 구분되어 조합한 8가지 스타일을 라인 드로잉으로 제시하였다. 블라우스 스타일은 유행에 앞서거나 뒤지지 않는 클래식 스타일로 하였다.

**스커트 :** 스커트는 폭 2가지 형태(벨형, 튜블러형), 스커트 길이 4가지 형태(미니, 샤넬라인, 미디, 맥시)로 구분되어 조합한 8가지 스타일을 라인 드로잉으로 제시하였다. 그밖의 선정방법은 블라우스와 동일하였다.

### 2) 방 법

중앙대학교와 건국대학교 여학생 83명을 대상으로 1991년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피험자에게 자극물을 제시할 때 각각의 자극물이 뚜렷이 부각되어서 피험자가 구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극물과 반대되는 색의 배경을 사용하였다. 얼굴 및 헤어스타일 사진은 1/2절지의 흰색 쉐트지에, 블라우스 및 스커트는 흰색 바탕의 그림을 각각 오려내어 1/2절지의 검정색 쉐트지에 부착하여 제시하였다. 피험자는 자극물과 약 1m 가량 떨어진 위치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각 자극물들에 대해 가장 지적 및 사회적 인상을 주는 얼굴과 헤어스타일을 1, 2순위로 선택하게 하였으며, 의복의 경우는 착용시 그러한 인상을 주리라 생각하는 스타일을 각각 선택하도록 지시하였다.

### 3) 결과 : 최종자극물 선정

각 단서들에 대해 피험자가 1순위로 응답한 자극물에는 2점, 2순위로 응답한 자극물에는 1점을 가산하여 합산한 후 지적 인상점수와 사회적 인상점수의 차이가 가장 큰 자극물을 채택하였다.

**얼굴 :** 지적 인상을 가진 모델은 신장 158cm, 체중 54kg이었으며 사회적 인상의 모델은 신장 159cm, 체중 55kg의 체격을 가졌다.

**헤어스타일 :** 지적 인상을 주는 헤어스타일에는 스트레이트의 세미 롱 헤어스타일, 사회적 인상을 전달하는 헤어스타일은 웨이브진 세미 롱 헤어스타일이 선정되었다.

**블라우스 :** 첼시칼라(chelsea collar)의 블라우스가 지적 인상을, 러플칼라(ruffled collar)가 사회적 인상을 주는 블라우스로 선정되었다.

**스커트 :** 지적 인상을 준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은 튜블러형의 미디스커트, 사회적 인상을 준다고 생각하는 스커트는 벨형의 미니스커트이었다.

3. 본실험

1)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독립변인의 조합에 따른 슬라이드 자극물과 이에 대한 인상을 측정하는 응답지로 구성되었다.

(1) 슬라이드 자극물

의복제작 : 예비연구 결과로 나타난 블라우스 및 스커트의 스타일로 의복을 만들었으며 무늬에 따른 인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색과 점무늬, 줄무늬의 소재를 사용하였다. 이와같은 무늬를 선택한 것은 여름철에 많이 이용되기 때문이었다. 점무늬는 직경이 0.7cm 무늬간 거리는 1.6cm, 2.4cm이었으며, 줄무늬의 넓이와 간격은 각각 0.6cm이었다. 색에 의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백색 바탕에 흑색 무늬로 하였으며 단색으로는 중간 톤의 회색등 무채색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옷감은 모두면 100%를 사용하였는데 직물의 물성은 대체로 유사하였다.

슬라이드 제작 : 모델 2명에게 가발로 된 헤어스타일 2가지, 실험용 의복 6가지(2가지 스타일×3가지 무늬)를 각각 착용시키고 칼라 슬라이드로 촬영하였다. 이때 모델의 표정, 자세, 카메라와의 거리, 노출, 배경 등은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촬영된 슬라이드는 각 모델의 헤어스타일에 따른 머리부분 슬라이드 4장과, 6가지 의복을 착용한 상반신 슬라이드 24장, 전신 슬라이드 24장으로 모두 52장이었다.

(2) 응답지 내용

인상형성에 대한 성직특성 형용사는 표 1과 같이 김기이의 연구에서 나타난 지적평가차원의 형용사 중에서 의미가 유사하지 않으면서 요인부하량이 높은 4개를 선정하여 무선으로 배치하였다.

<표 1> 지적 인상척도

형용사	요인 부하량
강인하다	.72
유능하다	.61
민중없다	.68
냉철하다	.75

본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실험을 거쳐 응답지를 수정, 보완하였는데 단일형용사를 사용한 5

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2) 피험자

피험자는 총 80명으로 건국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여대생과 신구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으로 임의 표집되었다. 표본의 분포는 2학년(73.75%)이 가장 많았으며 의류학 및 미술 관련 학과 학생이 40명, 衣類學과 무관한 학과 학생이 40명이었다.

3) 실험절차

加外變因을 통제하기 위하여 실험조건과 자극물을 무선적으로 배치한 후 본실험에 들어갔다.

(1) 실험조건 및 자극물 제시방법

실험조건은 2명의 모델이 2가지 헤어스타일을 한 4가지이였으므로 하나의 실험조건 당 피험자수는 20명씩이었다. 실험조건은 난수표에 의해 피험자에게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피험자당 실험조건에 해당하는 머리부분 슬라이드 1장과 상반신 슬라이드 6장, 전신 슬라이드 6장 등 모두 13장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사진 1에는 실험조건 1에 해당하는 지적 얼굴의 모델이 지적 헤어스타일을 하고 의복을 착용한 자극물을 실었다.

피험자는 먼저 머리부분 슬라이드를 보았으며 다음에 상반신, 전신 슬라이드를 보았다. 제시순서에 의한 순서효과를 통제함으로써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상반신 슬라이드 6장과 전신 슬라이드 6장 내에서 무선적으로 제시순서가 매겨졌다.

(2) 실험절차

실험기간은 1991년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이었으며 총 36시간이 소요되었다. 실험은 그림 1과 같이 환등기가 설치된 실험실에서 한사람의 실험자가 피험자 1명씩 실험하였으며 각각의 슬라이드에 대해 인상을 평가하도록 지시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SAS Ver. 6.04를 사용하여 다중변량분석(MANOVA), t-검증, 던컨의 다중범위검증을 하였다. 자료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위하여 크론바하의 알파(Cronbach- $\alpha$ ) 계수를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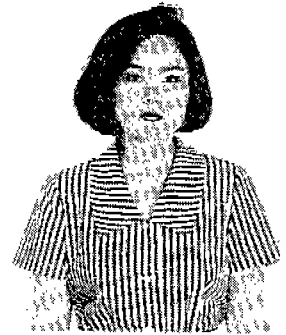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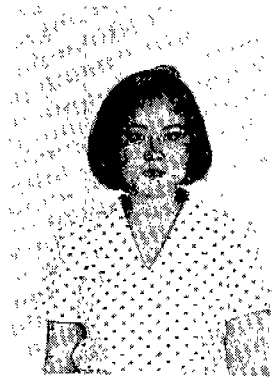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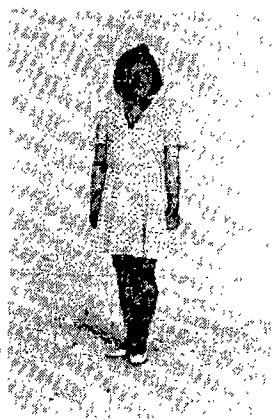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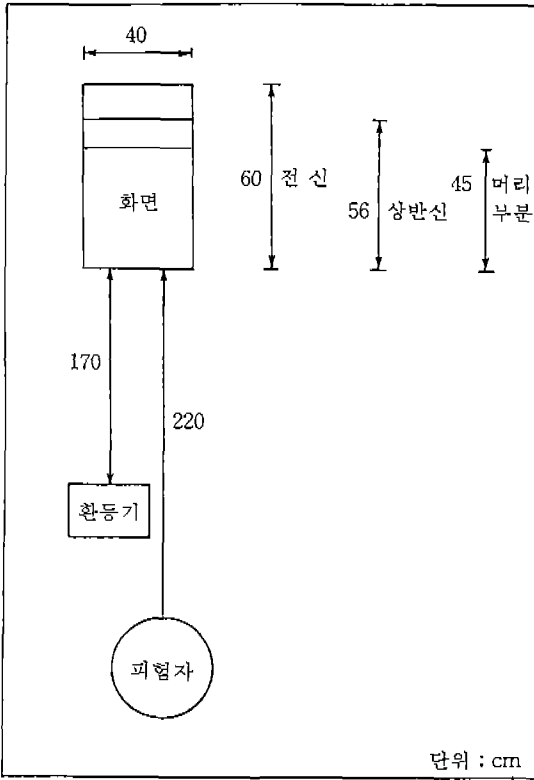


사진 1. 본 실험용 자극물 사진





〈그림 1〉 실험실 조건

#### IV. 결과 및 논의

##### 1. 지적 인상척도의 신뢰도

본실험 조사 자료(N=1040)를 토대로 지적 인상차원에 대해 신뢰도를 측정할 결과는 표 2와 같

다.

〈표 2〉 인상척도의 신뢰도

형용사척도	Cronbach- $\alpha$	
강인하다	.81	.84
유능하다	.81	
빈틈없다	.78	
냉철하다	.78	

지적 인상차원의 신뢰도는 0.84로 나타나서 신뢰도가 높은 편이었다.

##### 2. 외모 및 자극물 제시수준이 지적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외모(얼굴, 헤어스타일, 의복스타일, 의복무늬) 및 자극물 제시수준 변인이 지적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독립변인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중 유의성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얼굴

머리부분 자극물 80개 자료에 대한 것과 의복착용 자극물 960개 자료에 대해 얼굴이 지적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머리부분 자극물에서 보면 지적 얼굴의 모델이 사회적 얼굴의 모델보다 뚜렷하게 지적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복을 착용한 상태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에 대한 지적 인상형성에 얼굴이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표 3〉 지적 인상에 대한 5원 변량분석 총괄표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변량추정치	F 값
피험자간	79	2926.77	37.05	
얼굴(A)	1	73.15	73.15	1.99
헤어스타일(B)	1	43.78	43.78	1.19
A×B	1	23.13	23.13	0.63
오차 1	76	2786.71	36.67	
피험자내	880	10582.08	12.03	
의복스타일(C)	1	1443.05	1443.05	161.10***
의복무늬(D)	2	689.35	344.68	38.48***
제시수준(E)	1	52.73	52.73	5.89*
A×C	1	41.25	41.25	4.61*
B×C	1	10.21	10.21	1.14



A×D	2	2.03	1.01	0.11
B×D	2	26.08	13.04	1.46
C×D	2	168.56	84.28	9.41***
A×E	1	15.76	15.76	1.76
B×E	1	0.03	0.03	0.00
C×E	1	274.13	274.13	30.60***
D×E	2	77.31	38.65	4.32*
A×B×C	1	20.71	20.71	2.31
A×B×D	2	45.53	22.76	2.54
A×C×D	2	33.31	16.66	1.86
B×C×D	2	14.86	7.43	0.83
A×B×E	1	0.00	0.00	0.00
A×C×E	1	10.63	10.63	1.19
B×C×E	1	0.88	0.88	0.10
A×D×E	2	0.36	0.18	0.02
B×D×E	2	1.46	0.73	0.08
C×D×E	2	20.52	10.26	1.15
A×B×C×D	2	11.33	5.67	0.63
A×B×C×E	1	12.83	12.83	1.43
A×B×D×E	2	74.54	37.27	4.16*
A×C×D×E	2	33.38	16.69	1.86
B×C×D×E	2	3.53	1.76	0.20
A×B×C×D×E	2	9.19	4.60	0.51
오차 2	836	7488.54	8.96	
전체	959	13508.85	14.09	

\* $P<.05$  \*\*\* $P<.001$

<표 4> 지적 인상에 대한 얼굴변인의 평균치<sup>a</sup>

	지적 얼굴	사회적얼굴	F 값
머리부분 자극물	13.85	9.78	38.30***
의복착용 자극물	11.83	11.28	1.99

\*\*\* $P<.001$

<sup>a</sup>점수가 클수록 지적 인상을 나타냄

2)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이 지적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표 5에서와 같이 머리부분 자극물에서나 의복착용 자극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것은 지적 헤어스타일이 사회적 헤어스타일과 길이가 같았고 가발을 이용함으로 인해 그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다.

<표 5> 지적 인상에 대한 헤어스타일 변인의 평균치

	지적 헤어스타일	사회적 헤어스타일	F 값
머리부분 자극물	12.38	11.25	2.93
의복착용 자극물	11.34	11.77	1.19

3) 의복스타일

의복스타일이 지적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F=161.10, P<.001$ ). 표 6을 살펴보면 지적 스타일의 의복을 착용했을 때 지적 인상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의복이 지적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인자·송선옥<sup>6)</sup>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블라우스, 스커트 형태 중 보수적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켈시칼라의 블라우스와 미디길이의 타이트스커트가 지적 인상을 형성한 것은 Workman<sup>29)</sup>과 Paek<sup>19)</sup>의 연구에서 수트 같은 보수적 스타일이 지적 특성을 전달했다고 하는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표 6〉 지적 인상에 대한 의복스타일 변인의 평균치

지적 의복스타일	사회적 의복스타일	F 값
12.78	10.33	161.10***

\*\*\*P<.001

4) 의복무늬

의복무늬는 의복스타일과 마찬가지로 지적 인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38.48, P<.001). 3가지 무늬에 대해 던컨 테스트를 한 결과 단색과 줄무늬가 가장 지적 인상을 주었다. 표 7에서 보면 단색과 줄무늬는 점무늬보다 뚜렷하게 지적 인상을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색은 무늬의 움직임이 없는 딱딱한 느낌이 지적 인상을 전달했기 때문인것 같으며 줄무늬의 경우는 Forsythe 등<sup>25)</sup>의 연구에서도 남성적 특질을 지녔다고 한 것으로써 지적 인상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표 7〉 지적 인상에 대한 의복무늬 변인의 평균치

단색	점무늬	줄무늬
12.28(A)	10.37(B)	12.02(A)

( ) 안의 문자가 다른 것은 던컨 테스트 결과  $\alpha<.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문자의 순서는 점수의 크기 순서와 같다.

5) 자극물 제시수준

자극물 제시수준에 의한 지적 인상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5.89, P<.05)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었다. 상반신으로 제시되었을 때가 전신으로 제시되었을 때보다 지적 인상점수가 높았다. 이는 스커트 또는 전신체형의 단서가 추가됨으로써 지적인 인상형성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표 8〉 지적 인상에 대한 자극물 제시수준 변인의 평균치

상반신	전신	F 값
11.79	11.32	5.89*

\*P<.05

6) 얼굴과 의복스타일의 상호작용 효과

표 9에서 보면 얼굴 인상의 경우 지적 의복스타일에서만 차이가 나타났을 뿐(t=3.17, P<.01) 사회적 의복스타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지적 얼굴에서의 의복스타일에 의한 차이(t=10.49, P<.001)와 사회적 얼굴에서 의복스타일에 의한 인상차이는 현저하여(t=7.47, P<.001) 얼굴보다 의복스타일에 의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지적 얼굴의 모델이 지적 의복스타일을 착용했을 때 더욱 지적으로 보이게 했다. 이것은 같은 종류의 정보가 추가됨으로써 일어나는 累加效果라고 생각되며 지적 인상형성에 인물보다 의복이 더 영향을 미쳤다는 이인자등<sup>5)</sup>의 선행 연구를 지지해 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9〉 지적 인상에 대한 얼굴과 의복스타일의 상호작용 효과

	지적 얼굴	사회적 얼굴	t 값
지적 의복스타일	13.27 <sup>a</sup>	12.3	3.17**
사회적 의복스타일	10.4	10.26	0.46
t 값	10.49***	7.47***	

\*\*P<.01 \*\*\*P<.001

<sup>a</sup>평균치

7) 의복스타일과 의복무늬의 상호작용 효과

표 10-1에 의하면 의복무늬에 관계없이 지적 의복스타일이 가장 지적인 인상을 형성하였다. 표 10-2에서 의복스타일별로 무늬에 의한 차이를 살펴보면 의복스타일에 관계없이 단색과 줄무늬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단색과 줄무늬는 점무늬보다 더 지적 인상을 형성하였으며, 특히 지적 의복스타일로 착용되었을 때 더욱 지적 인상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지적 의복스타일에 의한 지적 인상의 맥락에서 의복무늬의 효과는 그 인상을 더욱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표 10-1〉 지적 인상에 대한 의복스타일과 의복무늬의 상호작용 효과

	지적 의복스타일	사회적 의복스타일	t 값
단색	13.71 <sup>a</sup>	10.86	7.60***
점무늬	11.01	9.72	3.33**
줄무늬	13.63	10.41	8.58***

\*\*P<.01 \*\*\*P<.001 <sup>a</sup>평균치

<표 10-2> 의복무늬 간의 차이 검증(t 값)

	지적 의복스타일		사회적 의복스타일	
	단 색	점무늬	단 색	점무늬
점무늬	8.07***		3.41***	
줄무늬	0.24	7.83***	1.34	2.06*

\*P<.05 \*\*\*P<.001

8) 의복스타일과 자극물 제시수준의 상호작용 효과

지적 의복스타일은 제시수준에 관계없이 사회적 의복스타일보다 지적 인상점수가 높았다. 그런데 지적 의복스타일 착용시에는 상반신 제시보다 전신제시에서 지적 인상 점수가 높았으며 ( $t=2.20, P<.05$ ) 사회적 의복 착용시에는 전신제시로 인해 지적 인상 점수가 더 낮아졌다( $t=5.64, P<.001$ ). 전신제시에 의해 지적 인상형성에 뚜렷한 변화가 온 것은 스커트 형태가 지적 인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새로 주어진 정보는 시각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정보의 맥락에 달려있다는 Asch의 이론<sup>6)</sup>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주현<sup>16)</sup>의 연구결과 의복착용자의 下衣길이가 인상형성에서 중심특성이라고 한 것과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지적 인상형성에서 스커트 형태가 영향력이 큰 것으로 밝혀졌으나 그것이 스커트 길이 때문인지 폭 때문인지는 좀 더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표 11> 지적 인상에 대한 의복스타일과 자극물 제시수준의 상호작용 효과

	지적 의복스타일	사회적 의복스타일	t 값
상반신	12.48*	11.1	5.05***
전 신	13.08	9.56	12.88***
t 값	2.20*	5.64***	

\*P<.05 \*\*\*P<.001

\*평균치

9) 의복무늬와 자극물 제시수준의 상호작용 효과

지적 인상에 대한 의복무늬와 자극물 제시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였다( $F=4.32, P<.05$ ). 단색은 제시수준에 의한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점무늬와 줄무늬는 전신보다 상반신에서 더 지적으로 보였다. 표 12-2와 같이 제시수

준에서 무늬별 차이를 살펴보면 상반신에서 단색과 줄무늬는 점무늬보다 더 지적 인상을 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늬별 차이는 상반신 제시 때보다 전신 제시 때 더 유의하게 나타나서 전신으로 제시되었을 때는 단색이 지적 인상을 가장 잘 전달하였으며 그 다음이 줄무늬, 점무늬 순이었다. 이것은 의복무늬가 지적 인상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상반신보다 전신으로 제시되었을 때 의복무늬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 같다.

<표 12-1> 지적 인상에 대한 의복무늬와 자극물 제시수준의 상호작용 효과

	상반신	전 신	t 값
단 색	12.12*	12.45	0.99
점무늬	10.78	9.96	2.45*
줄무늬	12.48	11.55	2.78**

\*P<.05 \*\*P<.01

\*평균치

<표 12-2> 의복무늬 간의 차이 검증(t 값)

	상 반 신		전 신	
	단 색	점무늬	단 색	점무늬
점무늬	4.00***		7.44***	
줄무늬	1.08	5.08***	2.69**	4.75***

\*\*P<.01 \*\*\*P<.001

그리고 얼굴, 헤어스타일, 의복무늬, 자극물 제시수준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있었는데 지적 얼굴에 사회적 헤어스타일을 하고 단색인 지적 인상의 의복을 착용하고 전신으로 제시되었을 때 가장 지적 인상을 전달하였다. 얼굴과 헤어스타일은 피험자에게 뚜렷이 지각되어 주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을지라도 전체적인 인상을 형성할 때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것은 형태주의 입장에서 Kaiser가 말했듯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추론을 발전시킬 때 어떤 외모단서들을 선택했는지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을 형성한다<sup>18)</sup>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지적 인상을 형성하는 외모변인 중에서 의복스타일 또는 의복무늬의 영향은 주효과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모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의복변인은 지적 인상을 형성하는데 있어 얼굴변인보다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의복이 다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며 지적 특성과 관련된 관리직 취업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sup>24, 27, 28, 30, 31)</sup>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 V. 結 論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 인상형성에 미치는 얼굴, 헤어스타일, 의복스타일 및 의복무늬의 영향을 파악하고, 외모가 부분적으로 제시되었을 때와 전체적으로 제시되었을 때 지적 인상형성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의복단서 및 얼굴에 따른 인상형성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얼굴, 의복스타일, 의복무늬는 지적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쳤으나 얼굴보다는 의복스타일, 의복무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으며 특히 지적 얼굴의 모델이 지적 의복스타일인 켈시칼라의 블라우스와 미디길이의 스커트를 착용했을 때 가장 지적 인상을 전달하였다. 무늬는 단색과 줄무늬가 점무늬보다 지적 인상을 주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은 지적 인상형성에 주효과는 없었을지라도 다른 외모변인과 상호작용하여 지적 인상형성에 약간의 영향을 주었다.

(2) 외모가 부분적으로 지각되었을 때와 전체적으로 지각되었을 때 지적 인상형성에 차이가 있었다. 지적 의복스타일이나 지적 인상을 주는 단색은 전신제시를 통하여 더욱 지적 인상을 형성하도록 하였으나 사회적 의복스타일과 사회적 인상을 주는 점무늬는 전신 제시 때보다 상반신으로 제시되었을 때 더욱 지적 인상을 형성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스커트 형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연구결과와 확대 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각자에 따른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연령이나 성별 등이 다른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차이점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헤어스타일에 의한 차이가 기대보다 미흡하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헤어스타일의 길이가 같았고 가발 손질과 착용시 실제 헤어스타일과 같은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헤어스타일에 의한 영향은 다양한 형태로 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의복형태를 블라우스, 스커트로 제한하고 의복의 무늬와 색, 소재도 제한하여 연구하였는데 앞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의복유형별, 색채별로 성격에 대한 인상형성의 차이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參考文獻

1. Douty, H.I., Influence of clothing on perception of persons, *Journal of Home Economics*, 55(3), 197-202, (1963)
2. Johnson, B.H., Nagasawa, R.H., & Peters, K., Clothing style differences : Their effect on the impression of sociabilit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6(1), 58-63, (1977)
3. Sweat, S. J. & Zentner, M. A., Attribution toward female appearance style, in M. Solomon (Ed.),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MA : Lexington Books, 321-335, (1985)
4. Conner, B. H., Peters, K., & Nagasawa, R. H. *Person and Costume : Effects on the formation of first impression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1), 32-41, (1975)
5. 이인자·송선옥, 첫 인상형성에 미치는 의복과 인물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6(1), 27-38, (1981)
6. Asch, E.,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 Social Psychology*, 41(3), 258-290, (1946)
7. Rosenberg, S., Nelson, C., & Vivekananthan, P.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impression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9(4), 283-294, (1968)
8. Anderson, N.H., Application of a linearserial model to a personality-impression task using special pres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10, 354-362, (1968)
9. Osgood, C. E., Suci, G. J. & Tannenbaum, P. H.,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57), in Sears, D.O., Freedman, J. L., & Peplau, L.A., *Social Psychology*(5th ed.), New Jersey : Prentice-Hall.(1985)
10. DeLong, M.R., Dimensions of visual perceptions of clothing, *Perceptual & Motor Skills*, 47, 907-910, (1978)
  11. DeLong, M.R., & Larntz, K., Measuring visual response to cloth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8(4), 281-293, (1980)
  12. DeLong, M.R., Deonier, C.S., & Larntz, K., Use of perceptions of female dress as an indicator of role defini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4), 327-336, (1983)
  13. 박혜선, 의복에 대한 의미미분 척도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2)
  14. 강혜원 · 이주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의복의 의미( I ), *한국의류학회지*, 14(1), 31-43, (1990)
  15. 이경희, 의복형태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1991)
  16. 이주현,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
  17. 김성희, 한국어 성격특성 형용사들의 인상형성 차원에 관한 요인 분석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18. Kaiser, S.B.,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 D.C. Heath & Co.,(1985)
  19. Paek, S.L., Effect of garment style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 trait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5(1), 10-16, (1986)
  20. Bell, E.L., Adult's perception of male garment style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0(1), 8-12(1991)
  21. Lennon S.J., & Miller, F.G., Salience of physical appearance in impression forma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2), 95-104, (1984)
  22. 神山進·牛田聰子·柁田庸, 服装に關する 暗黙裡の パソナリティ理論(第2報), *纖維製品消費科學*, 28(9), 38-49, (1987)
  23. Lapitsky, M. & Smith, C.M., Impact of clothing on impression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writing abilit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9(4), 327-335, (1981)
  24. Behling, D.U. & Williams, E. A., Influence of dress on perception of intelligence and expectations of scholastic achievement,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9(4), 1-7, (1991)
  25. Forsythe, S.M., Drake, M.F., & Hogan, J.H., Influence of clothing attributes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 characteristics in M. Solomon (Ed.),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MA : Lexington Books, 267-277, (1985)
  26. Forsythe, S.M., Effect of clothing on perception of masculine and feminine managerial traits, *Perceptual & Motor Skills*, 65, 531-534, (1987)
  27. Cash, T. F., Impact of grooming style on the evaluation of women in management, in M. Solomon(Ed.),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MA : Lexington Books, 343-355, (1985)
  28. Pancer, S.M., & Meindl, J.R., Length of hair and beardedness as determinants of personality impressions, *Perceptual & Motor Skills*, 46, 1328- 1330, (1978)
  29. Workman, J.E., Effects of appropriate and inappropriate attire on attributions of personal disposition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3(1), 20-23, (1984-1985)
  30. Kelley, E., Blouin, D., Glee, R., Sweat, S., & Arledge L., Career appearance : Perceptions of university students and recruiters who visit their campus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3), 253-263, (1982)
  31. Francis, S.K., & Evans, P.K., Effects hue, value, and garment style on college recruiters' assessments of employment potential, *Perceptual & Motor Skills*, 76, 87-93, (1988)

## ABSTRACT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Appearance Variables upon the Intellectual Impression Formation.

Young-Bo Moon

Dept. of Home Economics, Shingu Junior College

In-Ja Lee

Dept. of Clothing, Kungo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into the influence of appearance cues on the intellectual impression formations,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impression formation between the case which the appearance is partially perceived and the case wholly perceived.

The study consists of the experiment of the factorial design with 5 independent variables of Face (intellectual and social), Hair Style (intellectual and social), Clothing Style (intellectual and social), Textile Pattern (single color, dot, and stripe), and Presentation Level of stimuli (upper-half and full-length).

The outcomes of study are as follows :

1) The intellectual impression formation was influenced by face, clothing style, and textile pattern, but clothing style and textile pattern were more influential than face. When the models with intellectual face wore in intellectual clothing style, they gave more additional intellectual impression. And when intellectual clothing was in single color, it conveyed more intellectual impression.

Hair style had no main effect but it influenced on the impression formation through interaction with other variables.

2)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formation of the intellectual impressions between the case the appearance was partially perceived and the case wholly perceived. The case of full-length presentation was more influential than that of upper-half presentation.